

**건축의 문맥론적 공간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extual Cognition of Space in Architecture

이용재* / Lee, Yong-J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xtual cognition of space in architecture focusing on Aldo Rossi and Michael Graves, the representative architects of spatial cognition in contextual architecture. This study on the contextual cognition of architectural space can be connected with linguistics and aesthetics's approache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s per the above mentioned aims and intentions are as follows : The concept of spatial analysis in Aldo Rossi's contextual cognition in architecture is described the Analogical Space of Speculative Aesthetics by Diachronie Restoration : That of Michael Graves' contextual cognition is defined Semiotics Space of Empirical Aesthetics by Synchronie Repeation.

키워드 : 현대건축, 공간, 문맥론, 유추, 기호

1. 서론

인간은 문화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한 매우 특수한 기능적 예술로서 건축을 인식하며, 동시에 다양한 생활의 장으로서 건축적 공간을 관찰자 자신의 예술적인 감성의 주관적 판단과 기능적인 이성의 객관적 논리에 따라 이해하고 평가해 왔다. 더욱이 건축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식과 평가는 관찰자의 주관적인 해석과 객관적인 평가가 항상 공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매우 연속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일종의 문맥론적인 발전 유형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건축의 이해와 평가에는, 건축공간에 대한 연속적 가치를 내포하는 문맥론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전제를 바탕으로 건축공간의 문맥론적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맥론에 관련된 제 분야와의 관계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 파악한 제분야로는 언어학과 미학,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건축공간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른 문맥론적 인식을 건축작품의 공간론적 분석으로서 접근하는 연구방법과 순서를 취했다.

이와 같은 방법과 순서를 통해 대비적으로 규정하게 된 공간 인식 개념은 순수언어학적 용어와 미학, 그리고 건축적 해석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개념으로 새롭게 규정하도록 시도했다. 그것은 문맥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석이 되기 위한 하나의 변별적 접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공간 인식 개념을 분석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불특정한 다수의 건축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보다는 그 특성이 매우 명확하게 표현된 건축가의 작품으로 한정하여 3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 접근하도록 했고, 대상작품에서 파악되는 공간의 범위는 내부와 외부공간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으로 분석해서 보다 체계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문맥론의 해석

사전적 의미로서의 문맥론(文脈論)은 그 용어의 정의가 실제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한 문장 안에 기술된 단어나 구, 문 사이에 성립하는 의미적 논리적 관계를 지칭하는 문맥에 관한 체계로서 이해되어 언어학이나 미학에서, 때로는 건축분야에서 다른 이론적 범주를 대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축의 해석과 논의를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문맥론을 정의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한 용어의 정

* 정회원,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전임강사

** 본 연구과제는 2001학년도 순천향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학술연구 조성비 일반연구과제로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의는 사전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봄으로서 규정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의 논지로서 의도하는 문맥론의 해석을 위해 언어학과 미학, 그리고 건축 또는 건축공간과의 관계를 범위로 하는 보편 타당한 의미의 문맥론을 정의하고자 한다.

2.1. 언어학과 문맥론의 관계해석

언어의 과학적 연구에 해당되는 언어학(言語學, Linguistics)은 그 시대와 사회 그리고 구성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언어를 분석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일종의 논리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의미와 기호의 구조시스템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19세기에 들어 과학적 체계의 분석접근이 가능해진 언어학은 특히, 소쉬르(F. de Saussure)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언어학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는 1916년 '일반언어학강의(Cours de Linguistique)'에서 시대의 지배적인 언어연구 태도, 즉 어떤 언어요소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추구하는 역사적인 경향을 두 가지 축의 연구로 해석하였다. 그 중의 하나인 '계기성의 축'은 언어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통시대(通時態)에 해당되는 연구이며, 다른 하나인 '동시성의 축'은 변화가 정지상태에 있는 어떤 한 시기의 언어상태를 말하는 공시대(共時態)의 연구에 해당한다는 분류¹⁾가 그것이다. 그는 공시 언어학을 공존하며 체계를 형성하는 각 사항의 논리적 심리적 관계를 다루고, 통시 언어학을 형성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대체되는 각 사항의 변화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²⁾

이와 같은 언어학 연구의 한 분야로 대두된 의미론(意味論, Semantics)은 그 내용에 의해서 공시론적 의미론과 통시론적 의미론으로 분류된다. 특정된 한 시기의 한 언어상태를 대상으로 의미의 유상성과 다의성 등 단어의 의미소를 분석하고 그 구조와 의미체계를 연구하는 공시론적 의미론은 일종의 정태언어학(靜態言語學)으로 접근체계로는 의미와 외부세계와의 대응관계, 문맥과의 대응관계 등에 따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서 동일 언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시대에 있어서의 체계를 비교하고 그 의미의 역사적 변천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통시론적 의미론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된 규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기호와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생성 문법에 따른 표면과 기저의 의미나 동의나 중의관계를 체계화시키는 연속적 관계성의 중시를 증명하였다.

이와 같은 공시론 또는 통시론적인 언어의 의미연구에서 일종의 문맥론적 상황이 내재되어 있음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언어의 개별적 존재성에서보다는 범주규칙과 어휘부에 따른 심층구조의 사변적(思辨的) 개념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함축적이며 연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한 비분절적이고 연속되는 경험적(經驗的) 연상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언어의 표면과 기저에 나타나는 개념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의 가치는 언어학에서 파악되는 맥락론적 관계성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 미학과 문맥론의 관계해석

미학(美學, Aesthetics)은 본래 감성적 완전성의 조건³⁾을 갖춘 미를 인식하는 학문, 즉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학'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미의 관념 자체는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그 용어와 의미 또한 변화되기 때문에 그 관념을 감성학으로서의 미학으로 완전히 다룰 수는 없다. 즉, 미는 감성적인 것임과 동시에 초감성적인 것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자극의 수용에 그치지 않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에 속한 것이어서 미학을 감성적 경험의 분석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미학은 감각과 정신의 전체적인 체험을 요구하는 경험적이면서도 사변적인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학의 주제는 사변적인 철학과 실증적인 과학으로 동시에 연구되어왔다. 따라서 미학의 가장 적절한 분류로는 순수한 이론적 지적활동으로서의 사변미학(思辨美學)과 실증적인 과학으로서의 경험미학(經驗美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적 경험의 본질에 관한 모델을 구성⁴⁾하기 위해서 철학의 내관적 분석과 심리학의 이론들을 결합시킨 사변미학은 미에 대한 비평체계로서 기계론적, 맥락주의적, 전체론적, 형식주의적 개념으로 정의⁵⁾할 수 있다.

1)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초판, 한국사전연구사, 서울, 1998, pp.253-254

2)소쉬르는 언어현상의 총체인 '랑가주(language)'를 분석하여,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파롤(parole)'과 사회적이고 항구적인 '랑그(langue)'를 구별하였다. 그는 랑그를 성립시키는 각 항목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대립되어 여러 관계에 의하여 관련되어 있으며 전체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구조나 체계를 공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유럽의 구조언어학은 소쉬르의 이러한 사상에서부터 시작되어, 두 개의 주요학과를 탄생시켰다. 그 하나는 L. 엘름슬레브를 중심으로 한 글로세매틱스(Glossematics: 言語代數學)학과로서 소쉬르가 주장한 추상적인 언어구조의 관계망 연구에 주력하였다. 다른 하나는 프라하(Praha)학파로서 제언어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1920년대 말경부터 음운론(音韻論: phonology)의 수립에 노력하였으며, N. 트루베츠코이와 R. 야콥슨이 그 중심적 역할의 학자들이었다.

3)1750년 바움가르텐(A. G. Baumgarten)의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서 'aesthetica'에서 유래한 미학의 조건은, 미에 대한 논의로서의 감각이나 감정에 의거한 저급한 인식능력, 즉 감성적 인식능력에 따르는 규범적 완전성에 근거한다. 그 조건으로 풍부함(ubertas)과 위대함(magnitudo), 진실(veritas), 빛남(lex aesthetica), 그럴 듯함(persuasio)을 들 수 있다. 井上充夫, 建築美學, 건축미론, 임영배, 신태양역, 초판, 도서출판국제, 서울, 1994, p.89

4)Lang, Jon,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건축이론의 창조, 조철희, 김경준역, 초판, 도서출판국제, 서울, 1991, pp.271-283

5)Stephen C. Pepper가 The Basis of Criticism in the Arts(1949)에서 제시한 분류에 따른 것으로, 각 개념을 대표하는 미학이론가는 조지 산타야나(기계론), 존 듀이(문맥주의), 버나드 보사케(전체론), 루돌프 아른

이중에서 맥락주의(脈絡主義)적 미학개념은 존 듀이(J. Dewey)를 대표로 하는 경향에 해당하는데, 미적 경험을 이상생활과 분리된 것으로 고찰하는 것을 거부하여 환경 형태들의 감상을 위해 제공되는 감각적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변화를 갖는 질서화된 변형과 같은 접근을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형상과 형태의 근본적인 의미를 강조시킬 수 있는 특성, 즉 지각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 듀이는 환경의 공간과 시간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적인 경험들에 관한 본질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서 사변 미학의 맥락주의적 개념은 미학이론에서 접근 가능한 문맥론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이와는 다르게, 지각 과정 및 태도형성에 대한 개개인의 내관적 분석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분석적인 시스템의 경험미학은 미에 대한 비평체계로서 정보이론적, 의미론적, 기호론적, 정신생물학적 개념으로 정의⁶⁾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미론적 개념과 기호론적 미학개념은 노르베르그-슐츠(C. Norberg-Schulz)나 소쉬르, 모리스(C. Morris)와 같은 미학이론가의 접근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언어학에서 파생된 의미의 학습과 전달, 그리고 기호에 관계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학습이 문맥 속에서 연상의 형성에 따른 것이며, 기호에 내재되어 있는 패턴과 의미 사이의 연상적 관계가 문맥 속에서 파악되는 것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경험미학의 의미론적 개념과 기호론적 개념은 미학이론에서 파악가능한 문맥론의 정의에 가까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2.3. 건축공간과 문맥론의 관계해석

언어학에서 문맥론의 정의는 공시대와 통시대, 사변적과 경험적, 또는 개념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로서 해석 가능한 반면, 미학에서의 정의는 사변미학과 경험미학, 맥락주의적 개념과 의미론적 개념, 기호론적 개념, 또는 객관과 주관의 관계로서 해석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건축공간에 있어서의 문맥론은 언어학이나 미학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건축의 공간론적 인식이 다양하게 논의⁷⁾된 이래, 문맥론적 인식으로

파악되는 건축공간은 하나의 논의대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맥론적 인식에 의한 건축공간은 단순한 형태적,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 문화에 이르는 범주에 질서를 부여해 주는 근원적인 지각적 연속성으로 파악하는 개념에서 그 관계를 해석한다면, 본질적이고 선형적인 실체로 파악하려는 일종의 연속성을 갖는 유형적 개념을 포함하며, 구조적 의미를 부여하여 건축공간의 내재적 원리를 미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공간에 내재된 원리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잠재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연속되고 있는 하나의 결정체로서 유형화된 언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의식으로 혹은 문화유형의 일부분으로 개인 또는 집단, 민족에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 Schema⁸⁾라는 건축형태군이 유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일정한 집단을 이루게 되어, 이로부터 건축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심층적 구성요소가 문화적 차원과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복잡하게 변화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문맥론적 인식에 따른 건축공간에서의 해석은 내재적 원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복제 가능한 사물의 이미지라기 보다는 하나의 범칙으로 작용하는 인식의 요소개념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형이 비록 하나의 대상이긴 하지만 서로 유사하지 않은 모호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창조성에 대한 미의식의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창조적 사고를 통해 건축공간은 예술적인 독자성과 기술적인 반복성이 동일한 구조 속에서 건축의 본질을 재정의하고 디자인 문제에 접근하는 건축가의 태도를 확증시킨다. 실제로 건축창조 행위에서 유형의 개념을 중시하는 건축가들은 건축을 비례와 구성의 고전적 규범의 전통 속에서 건축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문맥론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함을 통한 미학이나, 쇠르겔(H. Sörgel)의 효과적 공간과 공간예술로서의 건축미학, 그리고 제 3세대 건축이론가로 1921년 최초로 시공간 연속개념을 건축미학에 표현한 슈커(P. Zucker)나 근대건축의 공간적 특색을 처음으로 논한 기디온의 입체파나 미래파, 데 스틸 미학인 시공 연속체개념에 대한 건축공간개념의 정의는 종합예술에서 공간에 대한 건축의 의미와 본질을 부각시켰다.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는 건축의 의미를 실체와 실체 사이의 공허부인 공간에 있다고 정의한 라스무센(S. E. Rasmussen)이나 공간이 새로운 시대의 건축개념임을 주장한 겐코(K. Kengo), 현대건축의 의미를 공간에 두고서 접근해야 한다고 한 宮川英二, 건축을 조형하는 인간의 의도는 공간에 있다고 주장한 中村吉浪 등의 주장을 통해 건축의 본질개념을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슴츠(C. Norberg-Schulz)는 건축적 공간이 인간의 개인적, 공적 세계에 관한 schemata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적 공간이란 실존적 공간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개념적 정의로 그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용재,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8.12, p.34, p.38

8) 인간은 언어 속에서 생각하며, 언어는 현실세계에서 언어지는 경험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고가 언어를 통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역시 시각형태 창조는 정신적인 영상(Mental Image)이나 혹은 잠재적으로 내재하는 원래의 형태에 의하여 의존하게 된다. Drew, Phillip, Third Generation, 건축의 제3세대, 최무혁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91, pp.21-22

하임(형식주의)을 들고 있다.

6) D. E. Berlyne의 Studies in the New Experimental Aesthetics(1974)에 따른 분류에 해당된다. 각 개념을 대표하는 미학이론가로는 아브라함 몰레스(정보이론), 노르베르그-슐츠(의미론), 소쉬르(기호론), 베를라인(정신생물학)이 해당된다.

7) 19세기 후반 당시 공간개념을 건축미학의 총합체로 제시한 유일한 건축가인 쾰퍼로부터, 1893년 미학적 개념으로서 동적시각(kinetic vision)을 통해 건축이 본질적으로 공간을 통한 인간의 운동임을 주장한 힐데브란트(A. Hildebrand)나 건축예술이 공간의 창조자라고 정의한 쉬말소(A. Schmarsow) 이후, 모든 예술의지의 목적이 공간임을 1901년 주장한 리글(A. Riegl)에 이르면 공간개념이 과거 모든 역사시대에 통용되는 예술적 개념으로서 본격화되어 건축미학에서 공간성의 효과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브링크만(A. E. Brinckmann)의 공간과 매스의 결

3. 건축의 문맥론적 공간인식

건축의 문맥론적 공간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언어학적인 관계로서 해석한 개념에는 공시대와 통시대, 사변적과 경험적, 또는 개념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와 같은 어휘들이 사용될 수 있으며, 미학의 영역에서는 사변미학과 경험미학, 맥락주의적 개념과 의미론적 개념, 기호론적 개념, 또는 객관과 주관의 관계라는 개념으로부터 해석을 접근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관계해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건축 또는 건축공간에 관계된 문맥론적 인식의 정의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 하나의 개념은 통시대적 환원의 사변미학적 유추공간에 따른 건축공간의 인식이며, 나머지 다른 하나는 공시대적 반복의 경험미학적 기호공간에 따른 건축공간의 인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1. 통시대적 환원의 사변미학적 유추공간

(1) 공간인식

통시대적 환원의 사변미학적 유추공간은 건축공간을 연속적 특성에 따른 환원된 심층요소의 문맥론적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즉,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 사변의 연속적 변화관계로 접근하여 공간요소를 개념적으로 환원시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종의 유추론적 문맥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 공간개념은 유추를 통한 유형학적 관점으로서의 문맥론적 인식이 그 미학적 가치를 형태의 모방에서보다는 그 내적인 심층구조의 특성과 본질로의 환원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형태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하여 형태적인 유사성으로 다수의 개체적 형식을 정의했던 단순차원의 의미에서보다는 그 안에 존재해 온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근원적인 본질 요소로서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공간의 구체화 수단과 원천의 의미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주관성이라는 반복된 단편 이미지의 경험미학적 공간인식과는 다르게 그 사회의 역사적이고 집단적인 공동의 유추 기억과 의식에 따른 구조적 의미를 부여하는 심층적으로 내재해 있는 순수한 기하학의 구성요소간 이론적 체계로서 건축공간을 인식하려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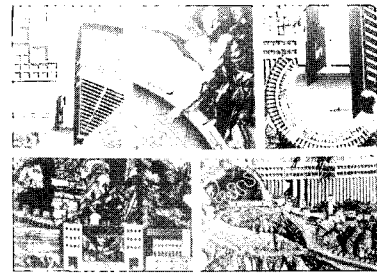
실제로 건축공간에서 그 구성요소가 중성적인 구조가 아니라 역사의 골격으로 구성되어 항구적이고 불변적인 속성을 취하면서도, 역사 속에 존재해 온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환원의 과정을 거치는 필수적 논리로서의 공간개념이 여기에 해당된다.⁹⁾ 이러한 심층적 구성요소의 환원적 본질공간은 건축을

고전적 유형과 규범으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축을 오히려 고전적 유형과 규범 속에 심층적으로 내재된 공간적 의미를 도출하여 현대적으로 환원시켜 건축공간의 본질로서 작용하려는 수단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작품분석

이와 같은 통시대적 환원의 사변미학적 유추공간을 문맥론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도시공간과 형태에 표현한 건축가로는 알도 로시(Aldo Rossi)를 손꼽을 수 있다. 그는 도시 속의 문맥적 인식으로부터 유추해 낸 공간과 형태, 즉 추상화, 환원, 단순성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 기억,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통시대적 관점을 상기시켜 주는 재현적 구조의 개념을 건축에 표현한다.¹⁰⁾ 이것은 건축이란 거의 형태가 없는 재료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재하는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한다¹¹⁾고 했던 것에서도 유추 가능하다.

그의 유추적인 문맥공간은 단순형태를 바탕으로 건축공간을 사회적 기억의 출발점으로 환원시키고, 그 원형적 심층요소로서 대칭의 법칙에 따른 기하학적 조정의 평면형상이나 무한하



<그림 1> A. Rossi, The Analogical City, 1976

게 연속의 동일한 창, 초현실주의적 아케이드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고전적 형태의 기하학적 추상화나 역사적 건축구성요소의 적용, 기하학적 추구를 통한 장소성의 유추와 축의 중심성, 스케일의 과장, 지역적 특성과 요소와의 조합이라는 구성방식¹²⁾이 포함된다.

그의 신허리주의는 근대건축에서 추구했던 것과 다른 합리주의 건축을 위하여, 도시공간에서의 건축적 질서를 새로운 유추론적 문맥개념으로서 환원시켜 사변함으로서 인간의 도시에 대한 역사적 문맥을 영속시키는 통시대의 특성을 보인다.

그의 초기 작품 중에서 이와 같은 통시대적 환원의 사변미학적 유추공간이 문맥론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이 바로 '유추적 도시(The Analogical City, 1976 : with E. Consolascio, B. Reichlin, F.

간의 테마화, 즉 환상적, 유희적, 기하학적 공간으로 구성하는 건축이 그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심층에 구축되어 있는 심리적 효과를 야기하는 특성으로 빛, 음영, 색채 등의 효과가 도입되기도 한다.

10)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초판, 미건사, 서울, 1997, p.104

11)Rossi, Aldo, My Design and Analogous Architecture 1976 to 1979, The MIT Press, 1979, pp.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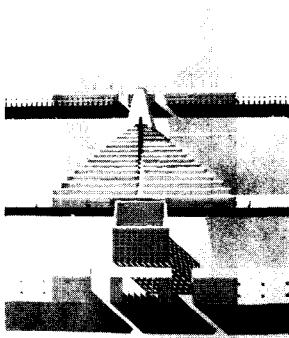
12)최운영, Aldo Rossi건축에 나타난 모뉴멘탈리티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8.6, pp.103-104

9)건축공간이나 도시공간을 미적으로 창조하여 구성하려는 목적을 개별적인 건축가의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에서보다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존속해 온 주관적 쉐마화(subjective schematization)를 본질로 하여 공

Reinhart)'이다.

그는 여기서 문맥으로부터 유형적으로 유추된 도시의 형태와 공간을 본질로서 내재된 심층요소로 표현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도시는 기억, 경험, 연속성에 의한 건축의 사실성에 근거한 장소임 동시에 그 문화나 예술과 같은 정신적 구조의 의미작용에 의한 미학적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장소이다. 유추공간의 장소로서 선정한 역사적 도시의 유형들은 그 영역의 기억과 의미를 유지하여 문화적 연속성을 재현해 주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건축의 공간구성요소가 자율적으로 환원되는 통시대적 유추의 건축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산 카탈도의 공동묘지(Cemetery of San Cataldo, Modena, Italy, 1971-84)에서 유추적 방법으로 도시공간의 본질적인 형태로 환원하여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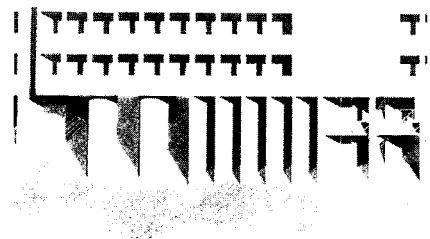
<그림 2> A. Rossi, Cemetery of San Cataldo, Modena, Italy, 1971-84

그것은 한 인간의 침전된 기억, 실상과 허상, 이미지와 현실 세계 등의 혼재상황을 오히려 로시는 유추의 사변적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건축으로 결실화한, 즉 기억의 문맥 속을 흐르는 건축이 되어서 생의 공간과 사의 공간 모두를 영원으로 환원시킨 초월적 추상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기계에 대한 부정과 함께 심층적 구성의 인간 존재를 매개로 한 건축본질을 인식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공간의 심리적 효과는 근대건축의 추상성의 공간개념과는 달리 주관적 감성에 바탕을 둔 건축체험 주체인 인간을 사변적으로 인식하여 매우 합리적인 기하학적 체계로 의식하고 접근한 결과로서 평가된다.

그는 근대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적 보편성이 과학적 방법론의 합리성에서 찾으려 했던 것에 비해, 그 원형적 공간대상을 도시라는 집단적 기억의 장소에서 유추해낸 '유형'이라는 과정으로부터 찾았다.¹³⁾

13)모더니스트들의 보편성의 근거가 인식론적이라면, 로시는 다분히 존재론적으로 표현했다. 현대적 의미의 유추적 도시 맥락을 따르는 그의 건축은 유형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기 위해 장식이 배제된 순수한 도형을 사용한 건축형태로부터 시작되어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거대한 피로티나 균제적 질서를 따르는 창문과 개구부의 배열 등 몇 개의 기본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중정이나 회랑, 뼈대형 평면의 공간을 형성한다.

갈라라테제 집합주거(Gallaratese Housing, Milano, Italy, 1969-73)는 단독 혹은 서로 조합된 공간을 통해서 하나의 모뉴먼트의 역할을 하거나 동일 요소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¹⁴⁾ 근대 집합 주거의 형식에 반복되는 동일한 형태의 판벽으로 나타나는 필로티와 그 패턴 사이의 과장된 원기동과의 대비, 그리고 정방형 개구부의 반복과 회랑을 통한 거리에 내재된 심층적 이미지의 공간표현이 그것이다.



<그림 3> A. Rossi, Gallaratese Housing, Milano, Italy, 1969-73

로시는 도시공간의 건축에서 유추해 낸 모든 인간이 건축에의 원초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요소를 해당지역의 문화와 장소성에서의 해석으로 이끌어 낸 유형들과 토속적 재료를 융합시켜서 상실되고 있는 건축의 본질과 의미를 회복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이고 독특한 가치를 갖는 장소로서의 역사적 문맥으로 작용하도록 이미지의 유추로서 환원시켜 재현한 연속성의 도시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의 유추적 건축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건축공간을 통시대적 환원의 사변미학적 유추공간에 부합하는 문맥론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했다.

3.2. 공시대적 반복의 경험미학적 기호공간

(1) 공간인식

공시대적 반복의 경험미학적 기호공간은, 건축공간을 개별적 특성에 따른 반복된 단편 이미지의 문맥론적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즉,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 경험의 통계적 대응관계로서 접근하여 공간 형식의 의미를 반복하여 그 가치를 집중시킨 일종의 기호론적 문맥공간이 되는 것이다.

특히, 형식구조로서 기술적인 반복성(repeatability)에 따른 공간 이미지의 의미를 하나의 기호론적 경험으로 집중화시키는 구심적 공간개념에서의 반복은, 단순한 복제의 이미지로서가

14)알도 로시의 건축은 초현실주의 작가인 키리코와 비교하여 간결하면서도 깊은 음영을 지닌 단순한 형태들을 통해 매우 일상적인 사물을 묘하게 비일상화시킴으로서, 건축으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의 전달에 공간적 의미를 갖게 한다. 인간은 신비를 통해서만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완전한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 키리코의 원근법적 형이상학 세계는 차가운 도시공간과 아무 의미도 없는 듯한 기다란 회랑, 광장, 조각상, 거대한 굴뚝모양의 탑들을 통해 도시의 가리워진 신비의 공간을 보여준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을 환상의 표현수단으로 하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왜곡되어 드러나는 우수와 고독, 공포를 연상시키는 종말적 수단으로 해석하게 된다.

아니라 건축공간의 잠재된 내용을 추출하여 공간적 실서로서 작용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건축공간 인식의 재현적 요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공간은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강조하는 헤겔미학 보다는 오히려 자율적인 형식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상적으로 결정되는 내용인 구심적 고전미학의 함축에 가깝다. 기호론적 문맥공간개념으로의 회귀 현상과 관련된 고전적인 대칭 구성과 엄격한 질서체계는 공간의 구심성 또는 중심성이 중요시되는 건축 수법에 기인한 것이다.

(2) 작품분석

이와 같은 공시대적 반복의 경험미학적 구심공간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건축가로는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를 들 수 있다. 그는 고전적인 대칭적 질서를 반영하는 정확한 기하학, 축, 좌우대칭 등의 평면과 공간구성의 개념이 반복성의 이미지를 통해 개별화된 의미와 기호성으로 나타나는 공간의 문맥적 관계¹⁵⁾를 중점하였다.

근대건축의 원심적인 개방공간과는 달리 한정된 윤곽체계가 강조되는 반복된 구심적 공간의 미학특성을 지닌다. 그레이브스는 건축의 이중적 상호작용인 사용자와의 기호체계를 통한 공간의 반복 의미를 은유적으로 상징화시킨 문맥론적 건축가이며, 단순한 전통적 이미지와 지역적, 문화적 맥락과 같은 외연적 이미지를 개별적인 경험미학적 가치로 통합¹⁶⁾하여 그 원형적 의미를 수용하는 의미론적 기호성을 추구한 건축가이다.

모던시대의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명확하고 특정적인 공간과 그리드에 의해서 보편공간의 구별과 구조체의 구별 즉, 공간 또는 공간의 표시체로부터 감각되는 대상 물체의 구별을 한 것에 비해서, 그레이브스는 모던과 포스트 모던의 이분법을 없애고 프레임화된 반복 그리드를 사용하여 수평과 수직을 구별하지 않는 추상적 관계를 시도함으로써 보편적 공간과 특정 공간 사이의 구별을 제거¹⁷⁾하는 주관화된 경험미학으로서의 새로운 기호론적 문맥공간을 제시하기도 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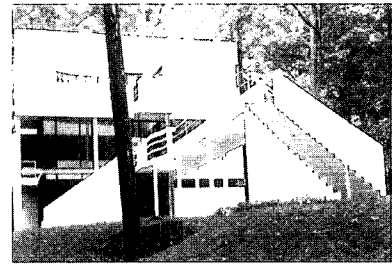
15)그레이브스는 형태나 색이 자연적인 것과 연결짓는다고 믿는 '형상 건축(figurative architecture)'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의 건물들은 비록 주변의 건물들과 많이 다르지만, 주변환경과는 달리 시각적 스케일과 유쾌한 모습으로 대지에 독창적으로 건축되어있다. 그는 각 건물의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문맥에 관심을 갖는다. 바로 이러한 이론이 포스트 모던 운동의 일반적인 이론들 중의 하나인, 문맥주의(Contextualism)에 해당된다.

16)건축 본질에 포함된 내포적 의미보다는 문화와 같은 외적인 영향인 외연적 의미에 관심을 둔 그레이브스는 후기작품에 인식가능한 물딩, 분열된 페디먼트, 키스톤, 격자기법, 크레타양식의 기둥 등 역사적 단편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벽표면이 장식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Jencks, Charles, Late-Moder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7/8, 1980, p.130

17)양동양 편, 현대건축론, 초판, 기문당, 서울, 1995, pp.71-72

18)반복된 이중적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이 건축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변형되고 풀라슈되며, 관찰자의 기억이나 경험, 연상과정을 통해서 건축은 건축가와 대중의 코드를 모두 고려한 다중코드화를 시도했다. Portoghesi, Paolo, After Modern Architecture, Rizzoli, 1982, p.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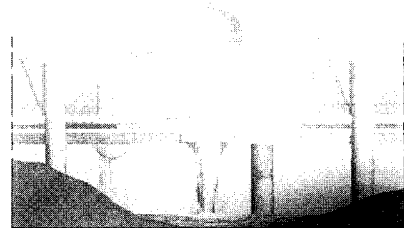
그레이브스의 작품 중에서 공시대적 반복의 경험미학적 기호공간이 문맥론적으로 적절하게 부합되어 표현된 것은 한셀만 주택(Hanselmann House, Fort Wayne, Indiana, 1967-68)이다.



<그림 4> M. Graves, Hanselmann House, Fort Wayne, Indiana, 1967-68

두 개의 연관된 구문(syntax)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입구는, 외부 공간구성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대립시켜서 단편화된 공시대적 상황을 경험하도록 했다. 그것은 건물의 입구 부분이 오히려 높게 올라감으로서, 그리고 은유적으로는 앞면의 계단으로서, 전면으로의 직접적인 접근과 다양한 분절, 또는 실제로 출입하는 문의 기능을 근접시킴으로서 매우 상징화된 일종의 기호를 개인이 주관적 가치로 경험하도록 의도한 것에 기인한다.

여기서 입구공간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새로운 건물 구성요소로서 재구성하여 생긴 내부공간과 주공간 사이의 전이된 브리지 공간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대립하는 신성한 공간과 세속적 공간의 대립을 은유적으로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항상 변화하는 수평과 평면으로의 공간 전개라는 주제로 복잡한 건축을 공간적 조각으로 반복 변형시킴으로서, 기능적 의미에서보다는 이중성과 다원성이 공존하는 이중적 의미의 기호로서 구성하여 건축공간의 인식을 문화적 기억의 지속성을 표현하려는 주관적 경험에 부합하는 상징적 구심대상으로 재현하였다.¹⁹⁾ 이러한 주관적 경험의 새로운 시도는 하나의 기호체계로서 이 주택의 공간이 작용하도록 집중화시킨 경험미학적 인식의 기호론적 문맥공간에 해당한다.



<그림 5> M. Graves, Fargo-Moorhead Culture Bridge, Fargo & Moorhead, 1977-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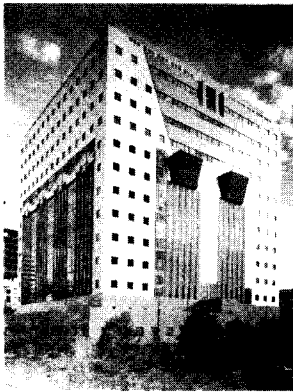
자유로운 벽이나 파상형의 구조, 공간으로 펼쳐지는 부드러운 반복프레임, 경쾌한 구성물로 변형시킨 그레이브스의 건축

19)이용재, 기호론적 건축의 공간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8호, 2001.9, pp.21-22

구성은, 파르고-무어헤드 문화센터(Fargo-Moorhead Cultural Centre Bridge, Fargo & Moorhead, 1977-78)에서 무중력적인 입면 대신 바닥으로부터 수직면을 가로질러 펼쳐지는 파사드가 있는 구심적이고 강한 축성의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했다.

공간적 전환을 목적으로 다리 양쪽에 공적 영역으로 진입함을 암시하는 실제입구와 입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다리 전체 모양은 극단적인 단편 이미지의 경험미학적 기호공간으로 해석된다. 독창적인 개인의 경험가치에 근거한 구성적 탐미주의로부터 시작된 그의 기호론적 문맥공간구성은, 이후 자연요소는유적으로 맥락의 흐름 내에 반복 부여하는 원론적 유형을 보다 직접적 의미로서 구심하는 공시대적 건축공간으로 창조하였다.

포틀랜드 시청사(Portland Public Service Building, Portland, Oregon, 1980-82)는 단편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고전적 모티브를 대규모의 도시건축에 적용함으로써 도시 공간 속에서 하나



<그림 6> M. Graves, Portland Public Service Building, Portland, Oregon, 1980-82

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현대 사무실건축의 새로운 기호로 작용하도록 했는데, 도시적 스케일에 부합하는 이 건축물은 사용자에게 의미 전달을 위한 수단으로 건물의 정면성과 공간적 깊이의 표상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벽이 공간을 지배한다는 의미로 벽은 점점 두껍게 처리되었으며, 개개의 공간은 명확히 구분되어 개개공간의 특성 갖게 의도했다. 이러한 개별적 특성을 갖는 공간의 연속성은 근대건축과는 차별되는 현대의 구심적 공간구성의 시도로써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건축공간을 공시대적 반복의 경험미학적 기호공간에 부합하는 문맥론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과정을 바탕으로 건축의 문맥론적 공간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문맥론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사용된 어휘는 언어학에서는 공시대와 통시대, 사변적과 경험적, 또는 개념적 의미와 연상적

의미이며, 미학에서는 사변미학과 경험미학, 맥락주의적 개념과 의미론적 개념, 기호론적 개념, 또는 객관과 주관의 관계로서 해석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해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건축 또는 건축공간에 대한 문맥론적 인식의 정의는 두 개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나는 통시대적 환원의 사변미학적 유추공간에 따른 건축공간의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대적 반복의 경험미학적 기호공간에 따른 건축공간의 인식으로 정의한 것이다.

통시대적 환원의 사변미학적 유추공간은, 건축공간을 연속적 특성에 따른 환원된 심층요소의 문맥론적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즉,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 사변의 연속적 변화관계로서 접근하여 공간 요소를 개념적으로 환원시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종의 유추론적 문맥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인식을 가장 적절하게 도시공간과 형태에 표현한 것은 알도 로시의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시대적 반복의 경험미학적 기호공간은, 건축공간을 개별적 특성에 따른 반복된 단편 이미지의 문맥론적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즉,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 경험의 통계적 대응관계로서 접근하여 공간 형식의 의미를 반복하여 그 가치를 집중화시킨 일종의 기호론적 문맥공간인 것이다. 이에 대한 건축작품으로는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작품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되었다고 정의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초판, 한국사전연구사, 서울, 1998
2. 김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초판, 미건사, 서울, 1997
3. 양동양 편, 현대건축론, 초판, 기문당, 서울, 1995
4. Drew, Phillip, Third Generation, 건축의 제3세대, 최무혁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91
5.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Thames & Hudson, 1992
6. Jencks, Charles, Current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1982
7. Jencks, Charles, Late-Moder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s 7/8, 1980
8. Lang, Jon,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건축이론의 창조, 조철희, 김경준역, 초판, 도서출판국제, 서울, 1991
9. Norberg-Schulz, Christia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역, 4판, 테림문화사, 서울, 1994
10. Portoghesi, Paolo, After Modern Architecture, Rizzoli, 1982
11. Rossi, Aldo, My Design and Analogous Architecture 1976 to 1979, The MIT Press, 1979
12. Van de Ven, Cornelis, Space in Architecture, 건축공간론, 정진원, 고성룡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88
13. 渡邊 護, 藝術學 예술학, 이병용역, 초판, 현대미술사, 서울, 1994
14. 井上充夫, 建築美論, 건축미론, 임영배, 신태양역, 초판, 도서출판국제, 서울, 1994
15. 이용재, 기호론적 건축의 공간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8호, 2001.9
16. 이용재,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1998.12
17. 최윤영, Aldo Rossi건축에 나타난 모뉴멘탈리티적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8.6

<접수 : 2002. 12. 30>